

# 주제 발표



# 강원 영동지역의 조기~전기 편년

朴 榮 九  
江陵原州大學校 博物館

##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III. 맺음말 |
| II. 영동지역 조기~전기 편년 |          |

## I. 머리말- 청동기시대 조기~전기 편년 연구

남한지역 무문토기에 대한 편년작업은 지역편년에 대한 연구작업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청동기시대의 시기구분은 초기(돌대문토기)-전기(가락동, 역삼동·혼암리식토기)-중기(송국리식토기)-후기(점토대토기)의 4분기로 구분되다가, 최근에는 초기-전기-후기의 3분기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구분을 남한지역 전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지역적인 문화양상의 차이가 보여지고 있어 무리가 있다.

남한지역의 무문토기문화의 성립은 모든 토기문화가 동시에 성립했다고 볼 수 없으며,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로 발생 및 전개과정을 보이는 등 지역성이 보여진다고 할 수 있다.

### 조기 설정

각목돌대문토기를 바탕으로 청동기시대 조기가 설정(이상길 1999; 안재호 2000)된 이래, 편년 및 계통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각목돌대문토기와 공반되는 이중구연토기, 거치문토기, 공열문토기<sup>1)</sup>에 대한 계통 및 조기설정에 관한 논의 및 조기설정

1) 안재호의 조기설정 이후 조기라는 용어를 적극 사용하는 연구자들은 조기의 문화상을 미사리식의 돌대문토기 중심으로 보는 입장(안재호·천선행·이형원)과 돌대문토기와 더불어 가락동식의 이중구연단사선 혹은 이중구연거치문토기, 그리고 역삼동식의 공열토기를 조기에 포함하는 견해(배진성·김현식·고민정·김병섭·정지선)로 전자는 미사리유형 조기론, 후자는 미사리·가락동·역삼동·혼암리유형 병존 조기론으로 구분된다(李亨源 2010).

론에 대한 비판적 견해 등 조기의 실체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배진성(2003·2007·2011)·김재윤(2003)·천선행(2005·2007)·이형원(2007·2010)·김현식(2008)·김장석(2008)·김병섭(2009)·고민정(2009)·정지선(2010)·박영구(2012)·정원철(2012)·이기성(2012)·한국청동기학회(2012))

### 전기 편년

2000년대 이전까지 전기 무문토기에 대해서는 빠른 형식인 가락동식토기와 역삼동식토기를 이른 단계로 보고, 가락동식토기와 역삼동식토기의 요소가 결합된 혼암리식토기를 늦은 단계로 보아왔다. 이에 대해 김장석(2001)은 가락동식토기와 혼암리식토기 사이에 절대연대 측정치에 차이가 없고, 각 형식의 지역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동일시기의 지역차이로 보았다. 이러한 김장석의 비판이후 가락동식토기, 역삼동식토기, 혼암리식토기가 공존하였다는 논의(이형원 2002)가 대세를 이루어왔다.

전기 무문토기의 특징은 돌대문토기가 소멸되고, 이중구연이 퇴화된 형태로 변화된 유사이중구연이 가락동식토기와 혼암리식토기에 채용된다. 유사이중구연의 요소가 보이지 않는 지역에는 공렬문이 주요소로 자리매김하며(고민정 2003), 전기 무문토기는 특정문양의 형식에서 시기를 결정할 수 없고, 지역에 따라 형식과 시간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고 보았다(천선행·안재호 2004).

반면에 각 형식 토기의 공존에 대한 의문과 함께 가락동식토기→혼암리식토기→역삼동식토기로의 변화된 편년도 제기되었다.(김한식 2006 김현식 2008)

영동지역 무문토기 편년은 발표자(박영구 2008)에 의해 이중구연토기요소와 공렬토기요소가 보이는 교동단계(I)는 초기~전기전반. 이중구연이 퇴화하거나 소멸하고, 이중구연토기 요소에 공렬토기 요소가 결합되는 사천리단계(II)는 전기전반. 장식성이 강한 이중구연+공렬토기 요소를 보이는 조양동단계(III)는 전기중반. 순수 공렬토기가 성행하는 방내리단계(IV)는 전기후반으로 편년하였다.

이와 같은 영동지역의 편년에 교동 유적은 상한은 초기까지 올라 갈 수 있다고 보는 견해(배진성 2007)와, 가락동식토기와 역삼동식 토기의 공반양상으로 파악(이형원 2007)하거나, 가락동유형으로 파악(庄田慎矢 2007)하여 전기로 편년하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또한 주거지의 변화상이 특별히 나타나지 않으므로 전기의 경우 전반은 강릉 교동, 양양 임호정리, 고성 사천리 유적이 해당되며, 후반은 속초 조양동과 강릉 방내리 A군, 대대리가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다.(김권중 2010)

본 발표에서는 기존 편년안에 대한 재검토작업의 일환으로 무문토기에 대한 분석과 절대연대측정치를 보완자료로 이용하여 영동지역 조기~전기의 편년작업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 II. 영동지역 조기~전기 편년

영동지역에서는 돌대문토기 요소는 보이지 않고 이중구연과 이중구연 단사선·거치문, 공렬문이 공반된 양상을 보인다. 이후 구순각목문이 결합되어 이중구연과 단사선문은 점점 퇴화되어 공렬문과 구순각목문만 남게 된다. 주거지는 늦은 단계까지 구룽에 입지하는 전통을 보이며 평면형태는 방형, 장방형이 대부분인데 세장방형 주거지는 교동 4·6호, 방내리(강문) 7호, 지흥동 3호 등 4기에 해당한다. 주거지 내부시설은 위석식과 무시설식의 노지, 주공, 벽구, 외부돌출구, 저장공 등이 확인된다.

각 단계별 주거지와 노지의 공반양상은 교동 유적에서는 장방형 주거지에 위석식 노지가 확인되고, 세장방형 주거지에서는 무시설식 노지가 설치된다. 임호정리 유적에서는 장방형 주거지에 무시설식 노지, 조양동 유적에서는 장방형주거지에 무시설식 노지가 확인된다.

역삼동식토기(공열, 적색마연토기, 대부토기)만이 출토되는 주거지에서는 가락동식 주거지 요소(위석식노지, 초석)인 위석식노지와 역삼동식 주거지 요소(무시설식 노지, 주공)인 무시설식 노지가 결합된 양상을 보인다. 대대리 8호와 입암동 1호에서는 가락동식 주거지 요소(위석식 노지 2), 대대리 6호<sup>2)</sup>와 입암동 2호에서는 위석식 노지+무시설식 노지, 대대리 5호 주거지 등의 주거지에서는 무시설식 노지 1~2기가 확인되며, 초석<sup>3)</sup>은 확인되지 않는다.

영동지역 청동기시대 무문토기문화의 전개양상은 한정적인 자료이지만 각각 유물의 조합상과 공반관계의 검토를 통해 단계<sup>4)</sup>를 설정할 수 있다.

I기는 서북지방의 이중구연토기요소와 두만강유역의 공열토기요소가 보여지는 교동 단계, II기는 교동 단계 보다 이중구연토기요소가 퇴화된 양상을 보이며, 이중구연요소에 공열토기요소가 결합하기 시작하는 사천리 단계, III기는 복합문인 혼암리식토기가 출토되는 조양동 단계와 가락동·역삼동주거지가 결합된 양상을 보이며, 역삼동식토기가 출토되는 대대리 단계, IV기는 역삼동주거지 요소에 공열토기가 출토되는 방내리 단계로 구분하였다.

2) 대대리 6호에서는 위석식+무시설식 노지, 후축인 7호에서는 무시설식 노지가 확인된다.

3) 남한강유역에 공열토기가 출토되는 주거지는 대형 장방형으로부터 세장방형을 거쳐 방형화 되는 주거지의 평면형태 변화와 함께 노지는 대부분 위석식노지가 확인되며, 일부 주거지(주천리 7호, 와석리 1호)에서는 초석이 확인되었다

4) 기존에는 교동(I기)-사천리(II기)-조양동(III기)-방내리(IV기)로 구분하였다(박영구 2008)

## 1) I기

교동 단계로 현재는 교동 유적만 해당한다. 교동 유적의 토기는 서북지역 요소의 이중구연 토기와 공열토기, 대부토기, 심발형토기 등 두만강 유역의 유물구성을 보인다.

교동 1호 주거지에서는 옹형<sup>5)</sup>에 가까운 이중구연단사선토기, 심발형의 공열토기, 장동형의 심발형토기, 발형토기, 직립구연의 장경호, 대부장경소호 등 기종이 다양하며, 5호주거지의 경우 이중구연거치문의 심발형토기, 직립구연의 장경호, 발, 유경소호, 대부소호 저부편. 6호에서는 이중구연 거치문토기, 3호주거지는 이중구연토기 등의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교동 유적은 청동기시대 초기와 전기로 보는 견해가 있다. 배진성은 교동 유적에서 보여지는 서북지역의 이중구연토기 요소와 심발형의 공열토기, 적색마연토기 등 두만강 유역의 영향을 함께 받아 형성되었으며 상한은 초기까지 올라 갈 수 있다고 보았고<sup>6)</sup>, 이형원은 이중구연단사선이나 거치문의 가락동식토기가 주류를 이루고, 돌류문의 역삼동식토기가 공반된다고 보고 전기로 구분하였고,<sup>7)</sup> 庄田愼矢는 위석식 노지와 가락동 토기가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가락동 유형으로 구분하였다.<sup>8)</sup>

교동 유적은 1호 주거지에서 보여지는 유물양상으로 보아 상한은 초기까지 올라 갈 것으로 판단된다.

## 2) II기

사천리 단계이다. 사천리유적의 유물구성은 이중구연요소와 공열토기가 공반 출토되는 주거지와 공열토기만이 출토되는 주거지로 구분된다. 주거지별로 살펴보면 11호에서는 이중구연단사선, 이중구연거치문, 공열(내-외), 대부토기, 6호주거지는 이중구연거치문구순각목, 심발형토기, 10호주거지는 순수 이중구연, 이중구연공열, 단사선, 장경호, 공열(외-내)의 구성요소가 보여지며, 공열토기요소가 출토되는 주거지는 1호 - 대부토기, 5·8호 - 공열토기로 구분된다. 석기는 삼각만입촉, 이단경촉, 장방형석도, 공구형석기, 토제·석제 방추차 등이 출토되며, 두 요소가 출토되는 주거지간 시간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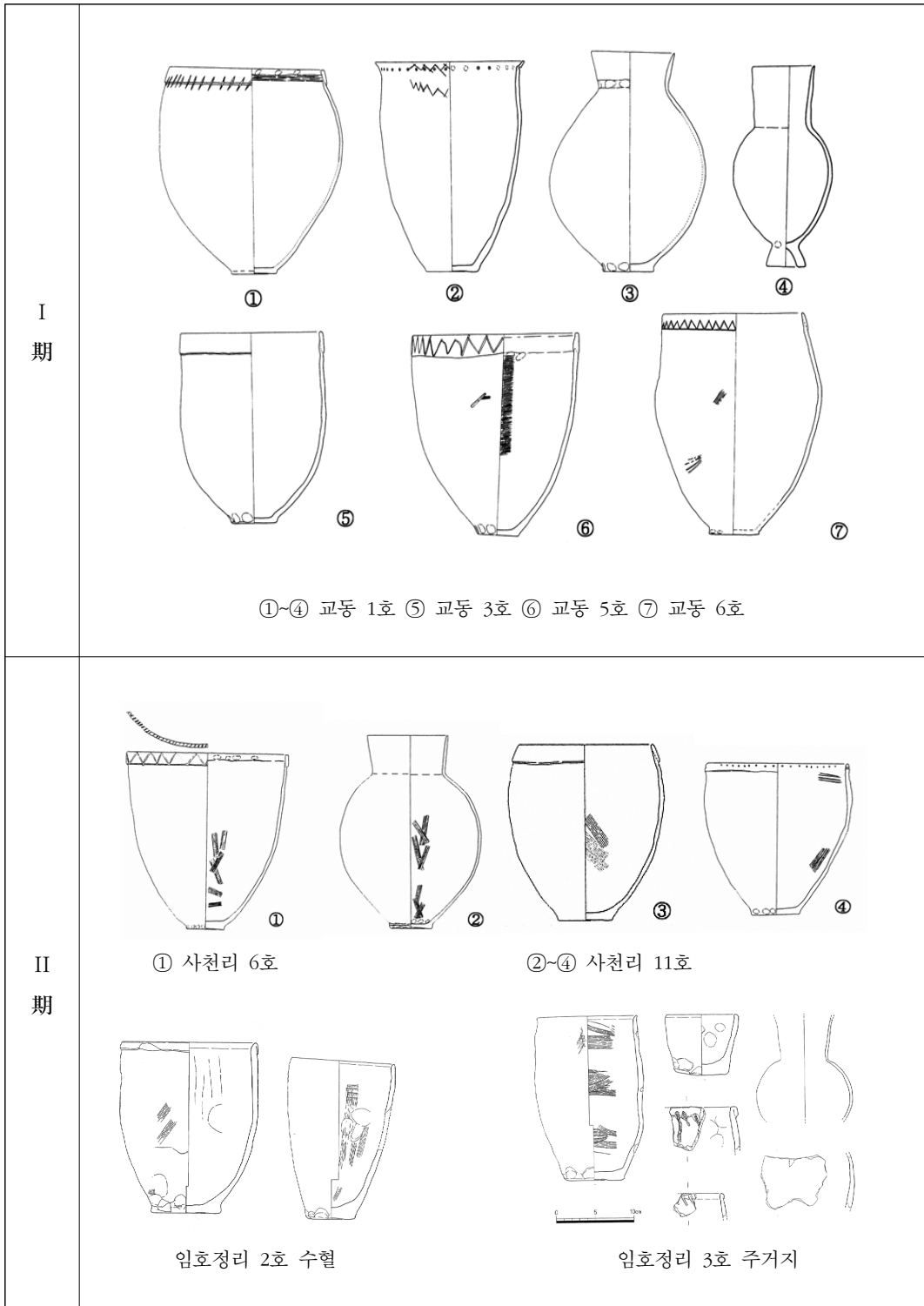
한편 주거지간 중복관계에서 중복된 1호와 2호, 6호와 7호의 출토유물상 시간차이가 크지

5) 교동 1호주거지 출토 이중구연토기는 옹형으로 심발형의 가락동유형의 토기로 보기 보다는 청천강유역의 이중구연토기와 유사성이 보여진다(배진성 2003), 또한 동최대경이 구경보다 커서 동중위가 블록한 형태인 정선 아우라지 1호 출토 돌대문토기와도 유사성이 보여진다. 한편 아우라지 1호 주거지에서는 돌대문토기와 함께 적색 마연호, 대부소호, 토제 방추차 등도 공반 출토된다.

6) 배진성, 2007, 『무문토기문화의 성립과 계층사회』,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 이형원, 2007,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전기의 상한과 하한」, 『한국 청동기시대의 시기구분』, 한국청동기학회 제1회 학술대회 발표요지, 한국청동기학회.

8) 庄田愼矢, 2007, 『남한 청동기시대의 생산활동과사회』,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그림 1〉 영동지역 무문토기문화의 전개양상(Ⅰ~Ⅱ기)

않지만, 3호 주거지와 중복된 4호에서는 구순각목토기와 신부가 세장한 유경식석축이 확인되어 사천리 유적에서 제일 늦은 주거지로 여겨진다.

양양 임호정리 유적 1호주거지에서는 이중구연단사선토기와 유헤구이단병식석검, 삼각만입축, 2호 수혈에서는 이중구연토기와 심발형토기, 3호주거지에서는 이중구연단사선, 심발형토기, 적색마연토기가 공반되어 사천리 단계에 포함된다.

사천리 단계는 전체적으로 교동 단계와 비슷한 유물구성을 보이지만, 이중구연토기 및 심발형 토기의 기고가 작아지는 기형의 변화가 보이고, 이중구연이 점차적으로 퇴화하거나, 소멸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이중구연토기에 구순각목과 공열 등이 결합하는 복합문 구성이 나타나며, 심발형의 공열토기가 공반되고 있어 교동 단계 보다는 약간 늦은 것으로 여겨진다.

절대연대는 이중구연토기가 출토된 임호정리 2호 수혈이  $2980 \pm 50\text{BP}$ , 중복관계상 선축된 주거지인 4호주거지는  $2880 \pm 50\text{BP}$ , 이중구연요소와 공열토기요소(평저장경호)가 확인된 3호 주거지는  $2700 \pm 60\text{BP}$ 으로 검출되었다. 임호정리 1호는 4호 주거지를 파괴하고 축조된 주거지로 절대연대는 2호 수혈과 같은 연대인  $2980 \pm 50\text{BP}$ 가 측정되어, 4호 주거지 보다 빠른 연대측정결과가 검출되었기 때문에, 1호 노지에서 검출된  $2810 \pm 50\text{BP}$  자료가 안정적이다.

절대연대는 BC 1140~980년으로 편년된다.

### 3) Ⅲ기

Ⅲ기는 혼암리식토기 요소를 보이는 조양동 단계와 가락동·역삼동 주거지 결합양상과 역삼동식 토기요소가 보이는 대대리 단계로 수정하여 편년하였다.

조양동 단계의 토기 구성요소는 이중구연+공열 요소가 주류를 이루고, 단순 공열토기, 적색마연토기, 내부토기 등이 출토된다.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공열의 복합문 토기가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 이중구연+구순각목+공열, 구순각목+공열문 토기등의 복합문양의 토기가 혼합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석기는 이단병식유헤구석검, 삼각만입축, 이단경축, 어형의 반월형석도 등이 공반된다.

방내리 1호 주거지에서는 공열, 퇴화단사선(홀구연),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공열토기의 복합문토기와 혼합된 양상이며, 2호 주거지 역시 공열, 이중구연+단사선+공열의 복합문토기가 혼합되는 양상을 보인다.

조양동 단계에는 방내리 A群 주거지인 1·2·3호 주거지<sup>9)</sup>도 포함된다. 절대연대는 방내리

9) 방내리 이중구연은 조양동 보다 퇴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중구연토기 요소와 단순 공열토기 요소가 혼합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단계로 여겨진다.

유적에서 중복관계상 선축 주거지인 3호  $2930 \pm 50\text{BP}$ , 조양동 5호  $2820 \pm 50\text{BP}$ 로, 절대연대는 BC 1110~990년경으로 편년된다<sup>10)</sup>.

대대리 단계에서는 역삼동식 주거지(대대리 5호, 지흥동 3호<sup>11)</sup>- 무시설식 노지 2~3기), 가락동식 주거지(대대리 8호, 입암동 1호, 방내리(강문) 13호 - 위석식노지 1~2기), 가락동식과 역삼동식 주거지 요소 결합(대대리 6호, 입암동 2호- 위석식+무시설식 노지)등 다양하게 확인되지만, 토기는 역삼동식토기(공열, 적색마연토기, 대부토기)만 확인되는 양상을 보인다. 입암동 유적에서 출토된 공열토기편 8점과 봉평리 유적 출토 공열토기편은 밖에서 안으로 반관통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대대리 유적에서는 6호와 7호, 9호와 10호 주거지가 중복되었는데, 절대연대상으로는 두 주거지간 시기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방내리(강문)유적에서는  $2800 \pm 60 \sim 2920 \pm 50$ 년으로 추정된 세장방형 주거지인 7호와 3·5·11호, 13호(I군)는 대대리와 같은 단계로 편년되며, 분묘로는 방내리 석관묘가 포함된다.

절대연대는 대대리  $2820 \pm 50 \sim 2940 \pm 50\text{BP}$ , 입암동  $2820 \pm 50 \sim 2920 \pm 50\text{BP}$ 이며, 방내리(강문)유적  $2790 \pm 60 \sim 2920 \pm 50$ , 세 유적의 절대연대가 중복되는 중심연대는  $2670 \pm 50\text{BP} \sim 2900 \pm 50\text{BP}$ 으로 BC 1100~850년경으로 편년된다. 상한은 대대리에서 중복관계상 선축된 주거지인 6호의 절대연대로 보아 BC 1110년으로 편년된다.

#### 4) IV기

방내리 단계<sup>12)</sup>는 역삼동 주거지요소에 토기 양상은 공열토기, 구순각목공열토기, 호형토기, 적색마연토기 등이 출토되는데, 구순각목토기와 호형토기의 출토량이 증가한다. 대부분 유적에서 출토되는 공열토기의 투공은 내측에서 외측으로 반관통된 형태가 확인되며, 석기는 이단병식 석검, 삼각만입촉, 이단·일단경촉 등이 공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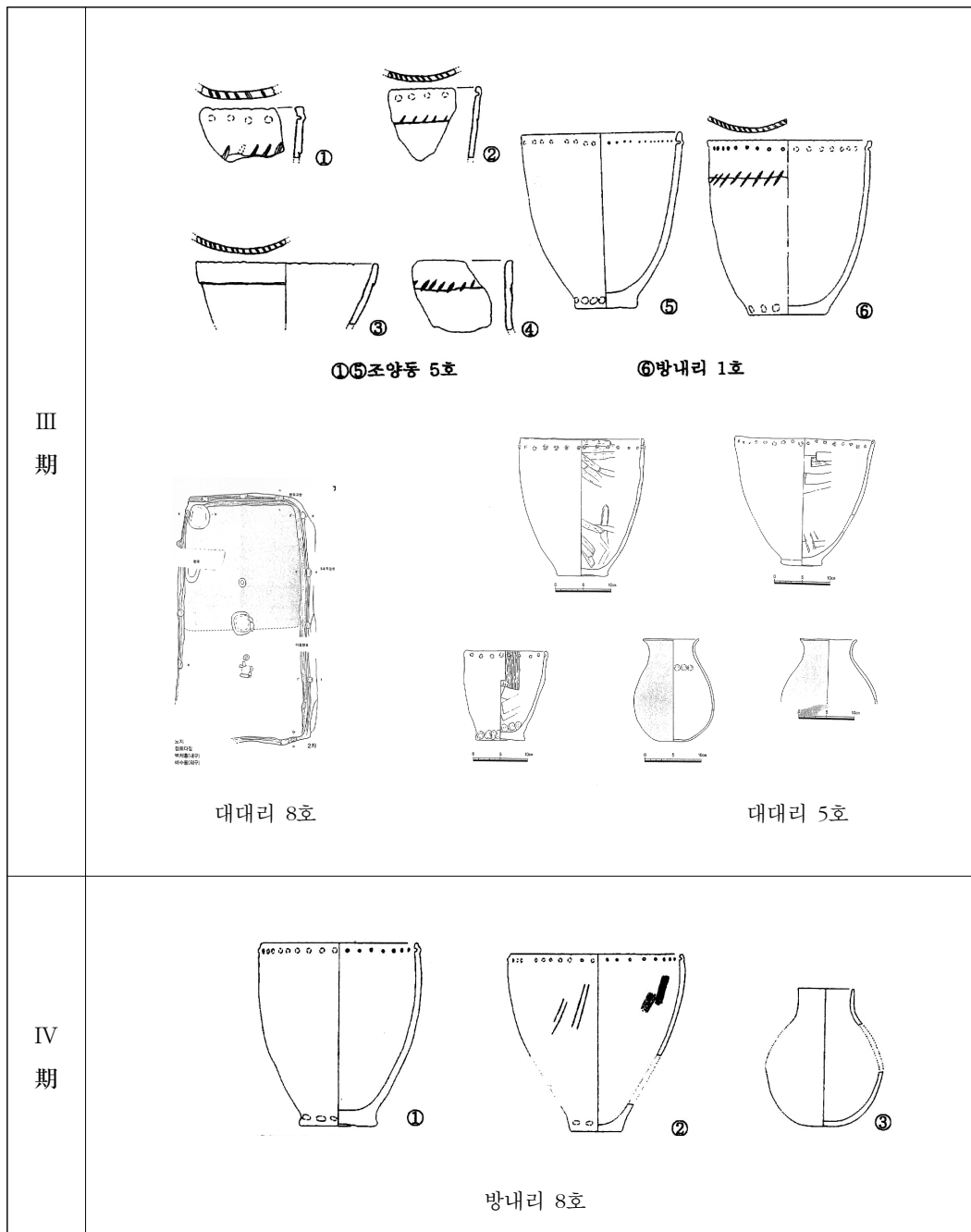
방내리(강문) 2·8·9·10·13·14·15호(II군)의 절대연대는  $2720 \pm 50\text{BP} \sim 2790 \pm 50\text{BP}$ , 방형유구에서는  $2670 \pm 60\text{BP}$ 으로 추정되어 방내리 B군과 같은 단계로 편년된다.

방내리 단계의 절대연대는  $2670 \pm 50\text{BP} \sim 2790 \pm 50\text{BP}$ 로 BC 970~850년경으로 편년된다.

10) 방내리A군 1호는  $2650 \pm 170\text{BP}$ , 2호  $2710 \pm 110\text{BP}$ 로 검출되어, 측정연대 오차범위가  $\pm 170$ 년, 110년으로 신뢰도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편년자료에서는 제외하였다. 영동지역 탄소연대측정자료는 일본에서 측정된 연대는  $\pm 25$ 년, 한국에서 측정된 자료는  $\pm 40 \sim 60$ 년의 오차범위가 검출된다.

11) 지흥동유적 3호는 세장방형 주거지에 무시설식노 3기가 설치된 대형의 세장방형주거지로, 공열토기와 대부토기가 출토되었다. 주거지의 규모나 출토유물로 보아 대대리 단계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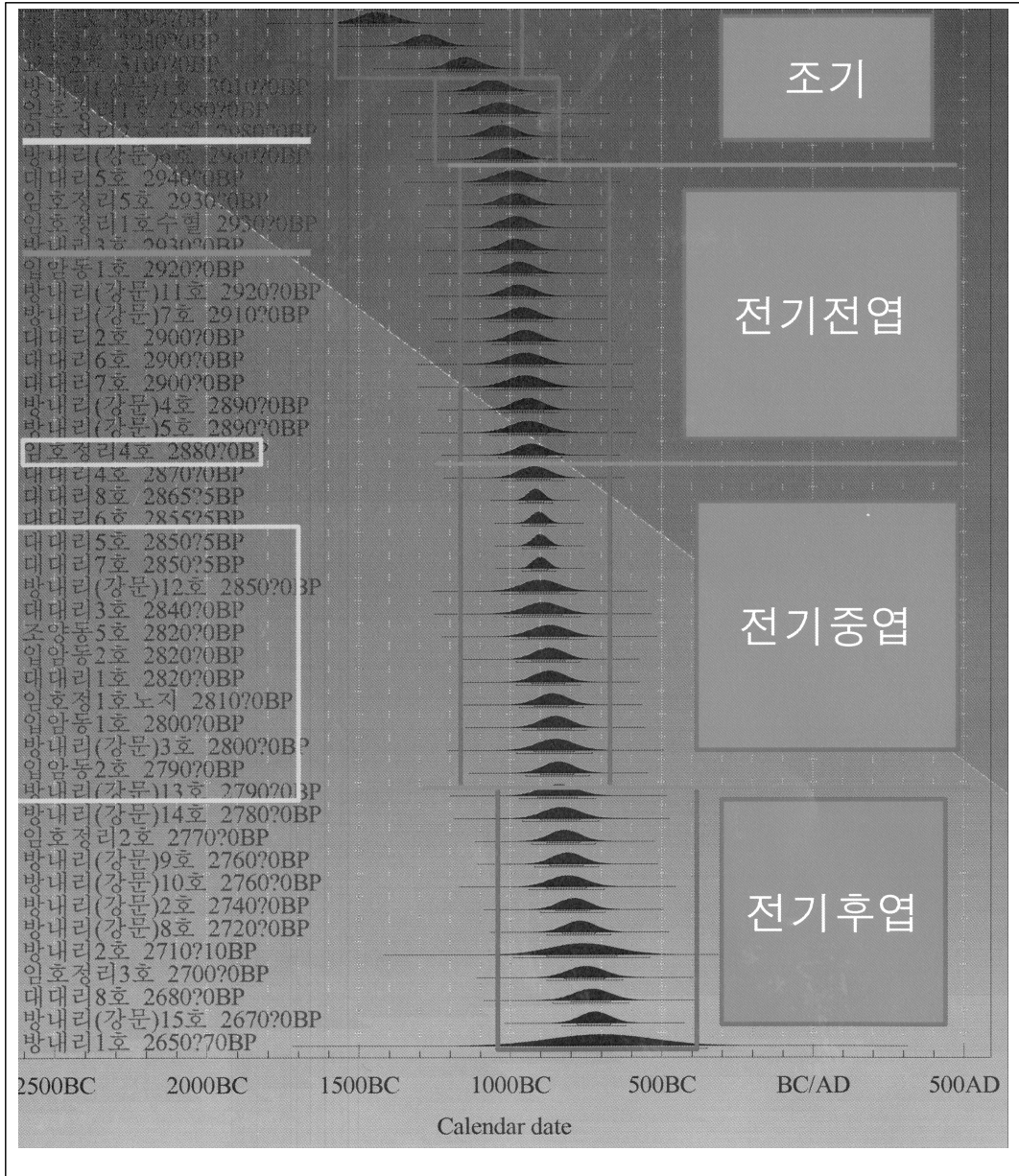
12) 기존의 방내리 단계(B군)에 해당한다.



〈그림 2〉 영동지역 무문토기문화의 전개양상(III~IV기)

〈표 1〉 영동지역 청동기시대 절대연대 자료

유적	측정값(BP)	보정연대(BC)		중심연대	측정기관	
		1σ (68.2%)	2σ (95.4%)			
교동 1호	3390±60	1743~1618	1878~1521		국립문화재연구소	
교동 2호	3100±50	1427~1315	1492~1219			
교동 3호	3230±50	1524~1434	1676~1408			
임호정리 1호	2980±60	1320~890	1390~1020	1210 BC	서울대학교기초과 학공동기기원	
임호정 1호 노지	2810±50	1050~890	1130~820	980		
임호정리2호	2770±50	980~840	1040~810	930		
임호정리3호	2700±60	905~805	1000~780	890		
임호정리4호	2880±50	1220~1040	1300~970	1140		
임호정리5호	2930±50	1130~970	1260~920	1070		
임호정리 1호수혈	2930±50	1260~1050	1310~980	1150		
임호정리 2호수혈	2980±50	1310~1120	1390~1050	1220		
조양동 5호	2820±60	1042~901	1206~830	990		국립문화재연구소
방내리 3호	2930±50	1257~1021	1365~944	1140		서울대학교기초과 학공동기기원  일본 Paleo Labo
대대리 1호	2820±50	1050~900	1130~840	990		
대대리 2호	2900±50	1200~1000	1260~930	1120		
대대리 3호	2840±60	1120~910	1210~840	1030		
대대리 4호	2870±50	1130~940	1220~910	1070		
대대리 5호	2940±60	1260~1050	1380~970	1150		
	2850±25	1049~943	1320~970			
대대리 6호	2900±60	1210~1000	1114~1098	1110		
	2855±25	1054~941	1091~960			
대대리 7호	2900±60	1210~1000	1270~910	1110		
	2850±25	1051~944	1115~929			
대대리 8호	2680±60	895~800	980~760	830		
	2865±25	1112~981	1125~934			
방내리 1호	2650±170	973~543	1258~392		日本 名古屋大學	
방내리 2호	2710±110	973~797	1187~549			
입암동 1호	2920±50	1220~1040	1300~970	1140	서울대학교기초과 학공동기기원	
	2800±50	1020~860	1120~830	960		
입암동 2호	2820±50	1050~900	1130~840	990		
	2790±50	1010~850	1080~810	950		
방내리(강문) 1호	3010±50	1430~1310	1500~1210	1380		
방내리(강문) 2호	2740±50	930~820	1000~800	900		
방내리(강문) 3호	2800±60	1030~840	1120~1820	970		
방내리(강문) 4호	2890±50	1190~990	1260~920	1070		
방내리(강문) 5호	2890±60	1200~970	1270~910	1090		
방내리(강문) 6호	2960±50	1270~1080	1370~1010	1170		
방내리(강문) 7호	2910±50	1200~1010	1270~930	1120		
방내리(강문) 8호	2720±50	910~815	980~790	890		
방내리(강문) 9호	2760±50	980~830	1020~800	910		
방내리(강문) 10호	2760±60	980~830	1050~800	930		
방내리(강문) 11호	2920±50	1220~1040	1300~970	1140		
방내리(강문) 13호	2850±60	1120~920	1220~840	1060		
방내리(강문) 14호	2790±60	1010~840	1120~810	970		
방내리(강문) 15호	2780±60	1010~840	1090~800	950		
방내리(강문)방형유구	2670±50	895~7950	930~770	850		



이상의 영동지역 무문토기문화의 전개양상을 각각 유물의 조합상과 공반관계의 검토를 통해 편년한 내용이 <표 2>이고, 강원지역 전체 병존편년안이 <표 3>이다.

〈표 2〉 영동지역 조기-전기 편년

유적	내부시설	유물		특 징	편 년
		토기	석기		
교동	위석식노지 무시설식노지 저장공	이중구연단사선토기 이중구연거치문토기 이중구연토기 공열토기, 대부토기 심발형토기, 유경호	삼각만입촉 장방형석도 방추차	서북지방의 이중구연토기요소, 두만강유역의 공열토기 요소	조기~ 전기 전반
임호 정리	무시설식노지 벽구 저장공	이중구연토기 이중구연단사선토기 심발형토기	삼각만입촉 유혈구이단 병식석검	이중구연토기요소(1호, 2호수혈) 이중구연과 공열토기 요소 공반 (3호)	전기 전엽/전반
사천리	무시설식 노지 외부돌출구 저장공	이중구연단사선토기 이중구연구순각목거치문 이중구연공열, 공열	삼각만입촉 이단경촉 장방형석도	이중구연이 퇴화되거나·소멸 이중구연+공열토기요소 결합	
조양동 방내리 (A군)	무시설식노지 저장공	이중단사선구순각목공열 이중구연단사선 공열, 대부토기	이단경촉 일단경촉 이단병석검	이중구연토기 요소 잔존 이중구연토기+공열토기요소 (혼암리식토기 요소)	
대대리	위석식노지 벽구	공열 적색마연토기	삼각만입촉 이단경촉	- 가락동식과 역삼동식 주거지 요소결합(위석식+무시설식) - 가락동식주거지(위석식1~2) + 역삼동식토기(공열, 적색마연 토기, 대부토기)	전기 중엽 전기 후반
입암동	위석식노지 벽구	공열토기	삼각만입촉 이단병석검		
지흥동	무시설식노지 <sup>3</sup> 외부돌출구	공열, 대부토기	유경식석촉		
방내리 (강문 I 군)	무시설식노지 외부돌출구	공열 적색마연토기	이단경촉 이단병석검		
방내리 (강문 II 군)	무시설식노지 외부돌출구	공열, 구순각목공열 구순각목토기, 호형토기	삼각만입촉 이단경촉	역삼동식 주거지+역삼동식토기 (공열,구순각목공열,대부토기)	전기 후엽
방내리 (B군)	무시설식노지 저장공	공열 적색마연토기	삼각만입촉 일단경촉	구순각목토기, 호형토기	

〈표 3〉 강원지역 무문토기 편년안

편 년				영동지역	북한강유역	남한강유역
박영구 (2008)	박영구 (2012)	김권중 (2010)	이형원(2009) <sup>13)</sup>			
조기	조기	조기	미사리유형	이중구연토기 공열토기	돌대각목문토기	돌대각목문토기 이중구연토기
				위석식, 무시설식	석상위석식, 위석식	석상위석식, 위석식
				교동	철정리II 외삼포리	아우라지, 동화리
전기 전반	전기 전반	전기 전반	가락동유형 1기 역삼·혼암리유형 1기	이중구연토기 이중구연공열 공열토기 적색마연토기	돌대각목문토기 이중구연토기 공열토기	돌대각목문토기 이중구연단사선공열 공열토기 적색마연토기
				무시설식	위석식	위석식
				임호정리, 사천리	현암리 금산리 연하리 대성리	주천리 아우라지 문막리
전기 중반	전기 중엽	전기 후반	가락동유형 2기 역삼·혼암리유형 2기	이중구연+공열	공열토기	공열토기
				공열	적색마연토기	적색마연토기
				무시설식	무시설식	위석식, 무시설식
				위석식+무시설		
				조양동	용암리 신매대교 천전리 철정리 거두리	천동리 마지리 가현동 태장동
대대리 입암동 지흥동 방내리(강문 I 군)						
전기 후반	전기 후엽	가락동유형 3기 역삼·혼암리유형 3기	공열토기 적색마연토기	용암리 신매대교 천전리 철정리 거두리	천동리 마지리 가현동 태장동	
			무시설식			
			방내리(강문 II 군) 방내리 B군			

13) 이형원은 남한 전역의 양상을 폭넓게 검토하기 위해 편의상 기존의 중부지역 전기전엽(가락동유형 I 기, 역삼동·혼암리유형 I 기)과 전기중엽(가락동유형 II 기, 역삼동·혼암리유형 II 기)을 전기전반으로, 전기후엽(가락동유형 III 기, 역삼동·혼암리유형 III 기)을 전기후반으로 2분하여 편년하였다.(이형원 2011)

## IV. 맺음말

영동지역에서는 돌대문토기 요소는 보이지 않고 이중구연과 이중구연 단사선·거치문, 공렬문이 공반된 양상을 보인다. 이후 구순각목문이 결합되어 이중구연과 단사선문은 점점 퇴화되어 공렬문과 구순각목문만 남게 된다. 주거지는 늦은 단계까지 구릉에 입지하는 전통을 보이며 평면형태는 방형, 장방형이 대부분인데 세장방형 주거지는 일부만 확인된다. 내부시설은 위석식과 무시설식의 노지, 주공, 벽구, 외부돌출구, 저장공 등이 확인된다.

영동지역 청동기시대 무문토기문화의 전개양상은 한정적인 자료이지만 각각 유물의 조합상과 공반관계의 검토를 통해 단계를 설정하였다.

I기는 서북지방의 이중구연토기요소와 두만강유역의 공열토기요소가 보여지는 교동 단계, II기는 교동 단계 보다 이중구연토기요소가 퇴화된 양상을 보이며, 이중구연요소에 공열토기요소가 결합하기 시작하는 사천리 단계, III기는 복합문인 혼암리식토기가 출토되는 조양동 단계와 가락동·역삼동주거지가 결합된 양상을 보이며, 역삼동식토기가 출토되는 대대리 단계, IV기는 역삼동주거지 요소에 공열토기와 구순각목토기, 호형토기가 출토되는 방내리 단계로 수정하였다.

편년상으로는 I기는 초기~전기전엽, II기는 전기전엽, III기는 전기중엽, IV기는 전기후엽으로 편년하였다.

## 참고문헌

- 高旻廷, 2003, 「南江流域 無文土器文化의 變遷」,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권중, 2010, 「청동기시대 중부지방의 시·공간적 정체성」, 『중부지방 고고학의 시』공간적 정체성(1)』, 2010년 중부고고학회 정기학술대회, 중부고고학회.
- 金炳燮, 2009, 「남한지역 조·전기 무문토기 편년 및 북한지역과의 병행관계」, 『韓國青銅器學報』4號, 한국청동기학회.
- 金壯錫, 2008, 「무문토기시대 초기설정론 재고」, 『한국고고학보』69, 한국고고학회.
- 김한식, 2010, 「경기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토기양상 검토」, 『전기 무문토기의 지역양식 설정』, 한국청동기학회 토기분과 워크숍, 한국청동기학회.
- 나건주, 2010,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기의 유형에 대한 검토」, 한국청동기학회 토기분과 워크숍 발표자료집, 한국청동기학회.
- 朴榮九, 2008, 「嶺東地域 無文土器文化의 展開樣相」, 『강원고고학보』11집, 강원고고학회.
- \_\_\_\_\_, 2012, 「中部地域 中部地域 突帶文土器文化의 展開樣相」, 『韓國上古史學報』75, 韓國上古史學會.
- \_\_\_\_\_, 2012, 「동해안지역 공열토기문화 소고」, 『한국청동기학보』11, 한국청동기학회.
- 裴眞晁, 2007, 「無文土器文化의 成立과 階層社會」, 釜山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安在皓, 2009, 「南韓 青銅器時代 研究의 成果와 課題 聚落研究」, 『동북아 청동기시대 조사연구의 성과와 과제』, 학연문화사.
- 李亨源, 2007,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전기의 상한과 하한」, 『한국청동기학보』1, 한국청동기학회.
- \_\_\_\_\_, 2010, 「청동기시대 초기 설정과 송국리유형 형성 논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고고학 9-2』1, 중부고고학회.
- 정원철, 2010, 「강원지역 전기무문토기의 전개양상」, 한국청동기학회 토기분과 워크숍 발표자료집, 한국청동기학회.
- \_\_\_\_\_, 2012, 「중부지역 돌대문토기 편년」, 『한국청동기학보』11, 한국청동기학회.
- 千羨幸, 2003, 「無文土器時代 前記文化의 地域性研究-中西部地方을 中心으로-」, 釜山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庄田愼矢, 2007, 『남한 청동기시대의 생산활동과 사회』,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